

스몰캡

미토스가 유발한 사이버 보안 우려감

엔트로픽의 미토스(Mythos)

미토스는 엔트로픽이 최근 개발한 AI 모델이다. 지금까지 개발한 AI 모델 중 강력하다고 자평했다. AI 최상위 모델 성능 평가에 쓰이는 박사급 난이도 문제를 모은 인류의 마지막 시험 벤치마크에서 현존하는 모델 중 가장 뛰어난 정답률을 보였다.

미토스는 취약점 발견 능력이 일반 해커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급 추론 능력을 활용해 수천건의 취약점을 찾아냈다. 중요 케이스로는 첫째, 방화벽 운용에 사용하는 오픈BSD에서 27년간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을 발견했다. 오픈BSD는 유닉스(UNIX) 계열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안을 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운영체제로 알려져 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상 인코딩, 디코딩 소프트웨어 FFmpeg에서 16년된 취약점 발견했다. 셋째, 다수의 리눅스 코드 문제를 조합해 리눅스, 서버를 장악할 수 있는 공격 방법 찾았다.

최근 공개된 영국 AI 안전연구소(AISI) 평가에 따르면 미토스 프리뷰 모델은 기업망 공격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는데 성공했으며, 외부 침투-내부 이동-권한 상승-데이터 탈취까지 복합공격을 자율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S/W의 보안 결함 및 취약점을 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 해킹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엔트로픽은 미토스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커나 범죄집단이 미토스를 악용할 우려감에 기인한다. 4월 7일 12개 빅테크 기업(구글, 애플, MS, 엔비디아, 팔로알토 등)과 엄선된 40여개 기관에 시범적으로 일부 기업에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하여 참여자들은 미토스를 자사SW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7월경으로 추정) 관련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미토스 관련 미국의 행보는 다음과 같다. ①미토스의 취약점 발견 능력이 일반 해커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금융 당국은 최근 주요 금융회사 CEO를 소집해 긴급 보안 점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토스와 같은 AI가 은행과 금융망을 침입할 해킹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②백악관 국가사이버국장은 주요 은행/부처/민관 기업을 한자리에 모아 국내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성을 파악하고, AI의 사이버 공격을 막을 보안 강화 작업에 돌입했다. ③4/12일, 미 정부는 은행사에 엔트로픽 미토스 모델을 시범 적용하라고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중 파트너사로 공식 지정된 것은 JP모건체이스이다. 해당 모델을 활용해 시스템 취약점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토스 출시 이전인 26.2월에는 오픈시가 GPT-5.3-Codex 기반 Trusted Access for Cyber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미토스 공개 일주만에 오픈시가 보안 취약점 탐지에 특화된 새 AI 모델을 일부 기업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소프트웨어의 보안 결함을 자동으로 찾아내는데 최적화된 보안 전문모델이다. 사이버 보안 관련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명준 스몰캡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서석준 Research Assistant
seokjun.seo@yuantakorea.com

종목	투자 의견	목표주가 (원)
지니언스	Not Rated (M)	- (M)
라운시큐어	Not Rated (M)	- (M)

사이버공격도 증가ing

지난 3월 FIRST(금융보안통합관제시스템)에 따르면, 전 금융사에 전달한 보안 위협 횟수는 2월 대비 2.5배 증가했다고 금감원에서 공개했다. 3월 중순 국내 한 카드사를 노린 디도스 공격 정황이 포착되어 금감원은 FIRST를 통해 500여 금융사에 실시간 경보를 전파, 각 금융사는 이를 토대로 선제대응한바 있다. 최근 텔레그램 등 국내 금융사 대상 해킹 관련신고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금감원은 연초 디지털 보안 사고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조직을 디지털리스크 분석팀과 감독팀으로 확대했다. 중동전쟁 이전인 2월말부터 FIRST를 본격가동하여, 소프트웨어 취약점·사이버 공격동향·전자금융 부정결제 등 주요 위험요인을 전 금융사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속도를 높이기 위해 FIRST를 구축, 지난 2월 2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에서는 보안위협 정보 수집과 전파, 비상상황 통보 등이 이메일 등 수작업 방식에 의존하여 정보전달 및 후속조치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FIRST는 상시 수집되는 보안 위협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중요 위협정보는 필요한 대응방안과 함께 금융회사에 즉시 공유하고, 금융사는 조치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회신한다.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엔트로픽 관련 국내 대응

4/1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을 긴급 소집하여 미토스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 긴급 회의에서 금융기업들은 EDR 구축 추진,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보안체계 마련, ¹레드티밍 운영, ²공격표면관리(ASM) 강화 등 계획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주요 금융사들의 EDR 사업계획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4/1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민/관/군 주관 부처에 긴급 대응을 주문, 과기부에서는 최근 엔트로픽과 오픈시가 자사의 최신 SI모델에 사이버보안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출범한 것과 관련해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가졌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플랫폼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참석했다. ①각 기업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SI를 활용한 보안 위협에 주의 &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으며, ②SI를 활용한 특이 공격 발생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 상황을 공유할 것도 요청했다.

4/15일, 과기정통부 요청, KISIA(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주관으로 국내 주요 사이버 보안 기업이 비공개로 SI보안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가 진행되었다. 지니언스(263860)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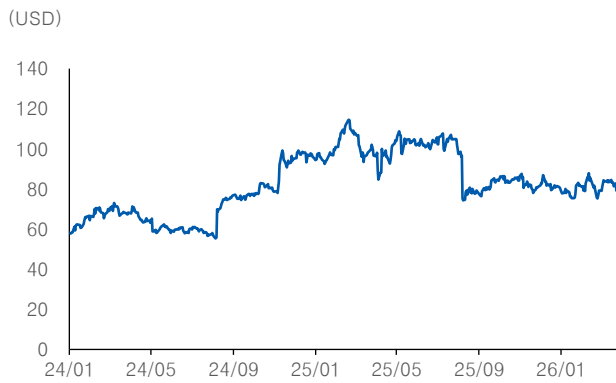
당사에서는 보고서(2025 K-사이버 보안 주목받을 수 있을까?, 25/03/17)에 제로트러스트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한바 있으며, 보고서(SKT 해킹사태 이후, 25/05/27) 보고서에서 해킹에 대한 방안으로 백신, EDR, 모의해킹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서술한바 있다.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국내 EDR 1위 기업인 지니언스(263860)과 모의해킹 관련 기업인 라온시큐어(042510) 등이 있다.

[참고1] 레드티밍(Red Teaming): 조직 내에서 전략적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공격하는 역할을 맡은 팀, 의도적으로 적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공격하는 모의훈련 및 검증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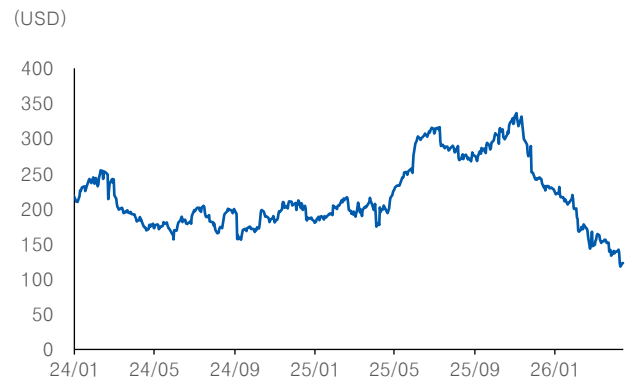
[참고2] 공격표면관리(ASM, Attack Surface Management): 해커의 관점에서 기업의 외부에 노출된 모든 IT 자산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취약점을 관리하는 보안 솔루션

[차트 1] 포티넷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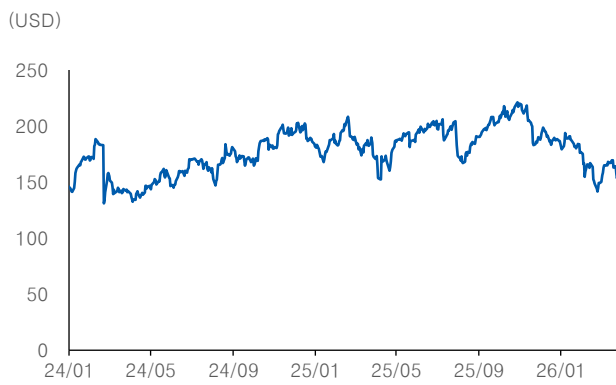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2] 지스케일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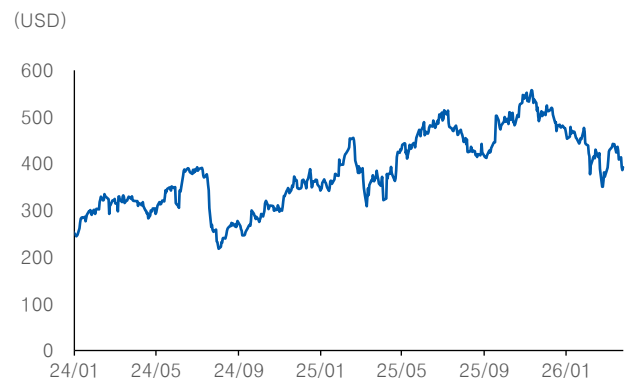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3]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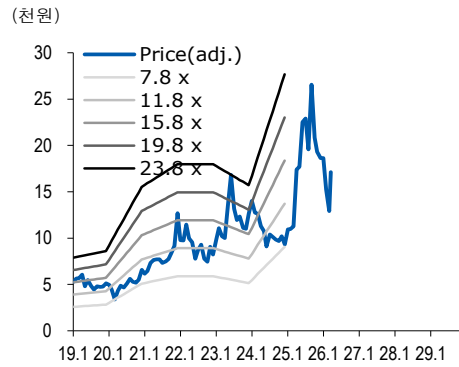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4] 클라우드스트라이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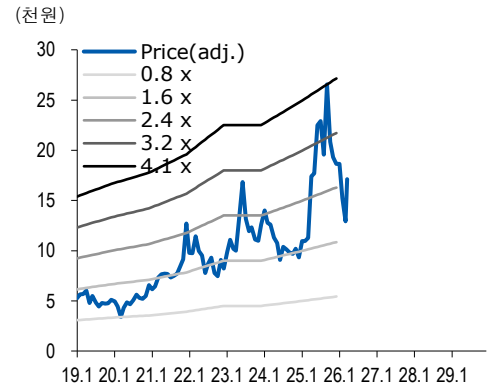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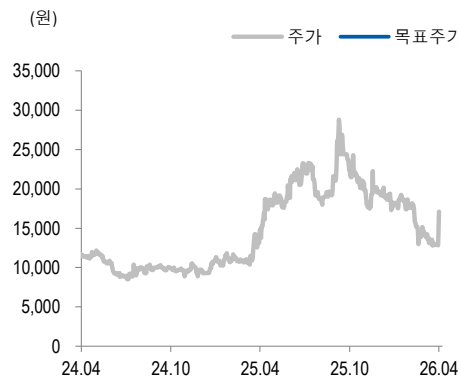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지니언스 (26386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6-04-16	Not Rated	-	1년		
2025-04-23	Not Rated	-	1년		
2025-03-28	담당자변경 1년 경과 이후		1년		
2024-03-28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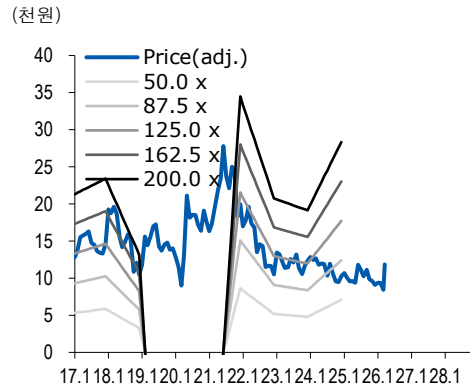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4.9
Hold(중립)	5.1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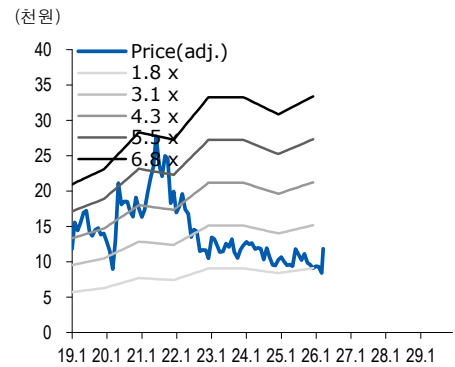
주: 기준일 2026-04-15

※해의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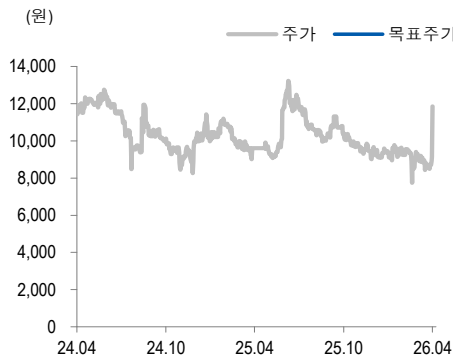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라운시큐어 (04251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6-04-16	Not Rated	-	1년		
2025-09-25	1년 경과 이후		1년		
2024-09-25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4.9
Hold(중립)	5.1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6-04-15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권명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